

## 한국의 공공기관, 출판업계, 번역학계의 번역언어 연구\*

최진실  
(계명대)

### 1. 서론

지난 20년간 한국의 통번역학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현재 대학교와 대학원과정에서 통번역 전공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수는 11개에 달한다(김련희 2011, 정호정 2013). 또한 그 학문적 성과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학술지도 『통역과 번역』, 『번역학 연구』, 『통번역학연구』, 『통번역교육연구』 등 연간 4회 또는 2회로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정호정 2013: 236). 이러한 학계의 활발한 움직임 가운데 통번역 교육의 대상 언어로 선택되는 언어와 학술지에서 빈번하게 논의되는 연구 대상언어는 공공부문의 번역언어 정책의 영향이나 민간부문의 번역수요와 무관한 것인가라는

---

\* 본 연구는 2013년 11월 28일 벨기에 엔트워프에서 KU Leuven 대학과 CETRA에서 공동주최한 Low Countries Conference II: Transferring Translation Studies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질문과 함께 본 연구를 시작한다.

최근 더욱 활발해진 국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異)문화, 이언어간 소통을 가능케 하는 통번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더욱 활발해진 번역학의 국제화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는 반면, 그로 인해 학계의 ‘유럽중심적’, ‘영어중심적’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Tymoczko 2005, Snell-Hornby 2010, 이향 2014). 특히 이러한 영어중심적 현상에 대해서 번역언어(방향)와 세계의 권력관계와 연관하여 논의하는 크로닌(Cronin)과 베이커(Baker)는 공통적으로 소수언어(minor 또는 minority language)에서 다수언어(major 또는 majority language)(대부분의 경우 영어)로의 번역방향이 해당언어 사용국가간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관계를 반영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Cronin 2006: 88, 139-140; Baker 2014: 17)<sup>1)</sup>.

그러나 국가내부적인 관점에서의 번역은 해당번역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크로닌에서 지적하듯이, 다중어적(polyglossic)인 필요성에 의해서 국내 수요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Cronin 2006: 4-5). 그 대표적인 예가 공공기관의 번역서비스이다. 전통적으로 단일언어인 사회가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부분적, 일시적 통번역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Koskinen 2014: 8), 또 공공서비스의 측면에서 통번역에 대한 관심도 각 국가마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강지혜 2013: 8). 하지만 이러한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 및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각국의 번역학이 반응하는 움직임은 국가내부적 또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학문적 위치성(situatedness)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13년 11월 벨기에의 루벤(Leuven)대학에서 CETRA와 공동주최로 국제학술대회(Low Countries Conference II: Transferring Translation Studies)가 열렸다. 본 학회에서는 포르투갈, 인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19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자국의 번역학의 위치성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의 장을 가졌었

1) 본 연구에서 소수언어라 함은 베이커(2014: 17)에서 “상대적으로 보급이 제한된 언어”를 일컫는다. 베이커는 크로닌(2003, 2006)을 언급하면서 권력관계로 소수언어와 다수언어를 구분하는 논의에 근거하면, 링구아프랑카인 영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가 소수언어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Baker 2014: 17).

다2). 한국 번역학도 지난 20년간 급속도로 양적, 질적으로 발전한 이 시점에서 그 위치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의 국내 번역학에서는 번역학 자체의 학문적 성격, 특징에 대한 연구로 번역학의 영어화현상(이향 2014), 해외 학술지와 비교를 바탕으로 한 국내 학술지의 연구동향(정호정 2013), 1999년-2013년까지의 국내 학술지의 연구동향(김혜림 2013) 등 국내 번역학의 연구동향 및 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계의 움직임 및 위치성을 다언어주의의 번역언어의 측면에서 실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학계에서 특정 언어 번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것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번역상황과 별개로 학문적 호기심을 반영하는 것인가 혹은 이들 중 어느 한 부문 또는 전체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인가가 본 연구의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공공기관에서 채택되는 번역언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정부분 국내수요를 반영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자국 내의 수요(예를 들어, 해당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수)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듯하다3). 그 선택유무에는 역사적 권리나 특정언어가 가지는 지위, 언어 간 또는 해당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권력관계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cf. Footitt 2012)4), 이러한 언어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회 간, 국가 간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도 한다(Koskinen 2014: 6)5).

2) 해당 학회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arts.kuleuven.be/cetra/transferringTS>, 2014년 10월 30일 마지막 접속).

3) 이에 대한 조언을 해준 영국 아스톤(Aston)대학의 크리스티나 샤프너(Cristina Schäffner)에게 감사를 표한다.

4) 풋티트(Footitt)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1940년대 영국 점령하 독일정부의 공식 언어는 영어였고 번역은 일절 금지되었다. 당시 영어는 지배언어였다(Footitt 2012: 224).

5) 코스키넨에 따르면 20세기 초 핀란드에서는 대부분의 인구가 스웨덴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행정의 공식언어가 스웨덴어였으나, 현재는 주(state) 단위에서 행정적으로 핀란드어, 스웨덴어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지만 스웨덴어는 번역으로만 주로 사용되는, 20세기 초와 정반대의 모습이다(Koskinen 2014: 6-8).

한국도 최근 더욱 활발해진 글로벌화 추세로 인해 공공기관의 통번역서비스를 확대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이 실제 해당언어의 국내 수요와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강지혜 2009: 26, 정혜연 2009: 189)<sup>6)</sup>. 하지만 이때까지의 국내연구에서 공공기관의 특정 번역언어 선택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민간부문의 번역은 소수언어국가의 문학 또는 텍스트를 외부세계로 알리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 외국어에서 자국어로의 번역이고(Baker 2014: 18), 영리적 목적의 특성상 가장 많이 번역되는 원천언어는 그만큼의 수요가 예측된다는 것인데, 한국의 민간부문 번역언어가 공공부문 번역언어와 어떠한 유사점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그 양상은 학계의 번역언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상담에도 유용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로서 번역학 학계의 교육대상언어와 연구대상언어가 공공부문의 번역언어, 민간부문(출판업계)의 번역언어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밝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특정 번역언어가 자주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당기관과 국내출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조사기간

자료수집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시행되었다. 단, 번역학계의

6) 그 실례로 2012년 11월 당시 서울특별시 웹사이트의 번역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로 국한되던 것이 2013년 10월에는 불어, 스페인어 서비스까지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실제 국내 사용자 인구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2013년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언어사용자 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체류외국인은 전체 416,026명 중 2.78%를 차지하는 베트남인이다. 이는 비록 1년간의 간극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서비스의 양상도 바뀌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대상언어를 살펴보기 위한 학술지 번역언어의 분석범위는 2013년 12월까지 출판된 것으로 한정한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식

공공부문 번역언어는 중앙정부의 17부(Ministries)와 7시(Cities) 9도의 지방정부의 웹사이트 번역언어를 그 대상으로 정했다. 각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정부에서 특정 웹사이트 번역언어가 선택되는 이유에 대해서 각 단체의 민원상담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자료수집 기간 동안 서비스의 변화양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1차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2차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해당 공공기관의 접촉 절차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공공기관 접촉 절차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 공공기관의 민원상담 웹페이지를 통해서 특정 번역어의 선택 이유에 대해서 질문</li> <li>2. 답변에 명시된 담당자의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2차로 이메일 및 전화인터뷰 실시</li> </ol> |
|--|

표 1과 같이 1차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2014년 자료수집 결과, 변화가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변경의 이유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질의하였다.

민간부문 번역언어는 출판번역을 중심으로 원천언어와 해당국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에 소개되는 대부분의 번역도서는 외국어로부터 한국어로의 번역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또는 언어)의 도서가 국내에 많이 소개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이븐 조하르(Even-Zohar)(1978/2000: 193)가 지적한 것처럼 해당언어 또는 국가의 국내 폴리시스템에 대한 영향력과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특정언어로부터의 번역이 선택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네이버 책’<sup>7)</sup>에서

7) 검색엔진 네이버를 선택한 이유는 BizSpring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 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검색엔진이기 때문이다(Choi 2014: 24) (네이버 책:

베스트셀러에 등재된 번역작품을 출간한 출판사 20개를 대상으로 이메일 및 페이스북, 블로그 인터뷰를 진행한다. 신종락(2007: 202)에 따르면 한국은 수년전부터 십여 개의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의 위치를 석권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소수의 출판사가 국내 출판시장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베스트셀러 번역서를 출간한 상위 20개의 출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여러 출판사가 브랜드화되어 하나의 그룹에 속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예를 들어, 문학동네의 경우, 글항아리, 애니북스와 같은 그룹에 속해있다)<sup>8)</sup>, 같은 그룹 내에 속한 출판사는 유사한 정책을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복하여 조사하지 않기로 한다. 접촉 대상 출판사와 전문분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접촉 출판사와 분야

출판사명	분야
걷는나무	문학, 인문, 자기계발 등
김영사	문학, 종교, 인문, 만화 등
돌베개	문학, 인문, 고전 등
문학동네	문학, 인문, 자기계발 등
문학사상	문학, 인문, 자기계발 등
문학수첩	문학, 인문, 자기계발 등
민음사	문학, 인문, 예술 등
보물창고	아동청소년도서
북스코프	문학, 종교, 인문 등 (대우재단)
북폴리오	문학, 인문, 자기계발서 등
푸른숲	문학, 인문, 자기계발서 등
사파리	아동청소년도서
에이트포인트(8.0)	자기계발서, 비즈니스
열린책들	문학, 인문, 만화 등
열림원	문학, 인문
위즈덤하우스	문학, 종교, 인문, 자기계발 등
한국문화사	언어학, 문학, 종교 등
현대문학	문학, 인문
해냄	문학, 인문, 자기계발 등
21세기북스	문학, 종교, 인문, 자기계발 등

[http://book.naver.com/bestsell/bestseller\\_list.nhn](http://book.naver.com/bestsell/bestseller_list.nhn), 2013년 10월 30일 마지막 접속).

8) <http://www.munhak.com/books/brand.asp?pidx=4>, 2014년 11월 6일 마지막 접속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출판사는 표 2에서 보듯이 분야별로 나뉘는데,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출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특정 번역서 또는 번역언어를 선택하는 데에도 주력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9월 23일 1차 접촉당시 응답출판사의 수가 세 곳에 불과했던 관계로, 응답하지 않은 출판사를 대상으로 2014년 4월 23일 2차 접촉, 2014년 10월 27일 3차 접촉을 시도하였다.

번역학계의 언어로는 전국의 번역학 과정 개설 대학을 중심으로 번역언어를 조사하고, 국내 번역학 연구의 대표적 학회지인 『번역학 연구』와 『통역과 번역』에서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논의된 번역언어를 조사한다. 두 학술지 선정의 근거는 정호정(2013), 김혜림(2013)에서도 번역학계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학술지로 선정하였듯이, “한국 최초의 통번역학 분야 전문학술지”이며 “최근 논문집 발행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이다(정호정 2013: 137-8). 기간을 위와 같이 한정된 것은 정호정(2013)에 따라 최근 연구경향을 보여주기 위해 약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출간한 학술지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분석 및 집필 당시 연간 학술지 전체 분량이 출판되지 않았던 관계로 연간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는 데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3 인터뷰 내용과 학술지 언어 분석방식

공공기관과 출판업계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xx의 홈페이지 언어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시는 점이 무엇인가요? 다른 지자체(혹은 부서)와 달리 xx어 웹페이지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판업계: 번역할 도서를 선정하실 때 고려하시는 점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원본의 인기, 언어, 등)<sup>9)</sup>

반면, 학술지 번역언어의 경우 연구논문의 성격에 따라 특정 번역언어를 선택

9) 출판사와의 인터뷰에서 ‘원본의 인기, 언어 등’과 같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이유는 단순히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텍스트 분석적 연구논문인 경우 번역언어를 설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특정언어에 대한 연구가 아닌 경우 번역언어를 설정하기가 힘들었다. 예를 들어서 『번역학 연구』 14권 4호, 조의연 조성은(2013)의 경우, 영어원문에 대한 한국어번역문의 문체를 분석한 것으로 번역언어와 방향은 명백하게 ‘영어-한국어’이다. 반면, 같은 호에 실린 이상빈(2013)의 경우, 특정언어에 대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번역언어를 설정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경우, ‘일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특정언어번역에 대한 연구이지만 원천언어가 무엇인지 알기 힘든 경우, 예를 들어 같은 호의 황지연(2013)은 성경의 중국어 번역문에 대한 연구이지만 그 번역이 히브리어에서 중국어로의 번역인지, 또는 중역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었고 번역연구대상, ‘중국어’로만 분류할 수 있었다.

학술지 번역언어 분석방식은 논문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1차로 분석하고, 논문제목과 초록에서 번역언어와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본문을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한국의 공공부문 번역언어

중앙정부의 17부와 7시 9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 번역언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2013년 대비 2014년 번역언어 서비스의 변경이 일어난 부서는 회색처리 하였다.

표 3 2013년, 2014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번역언어

중앙정부	2013 번역언어	2014 번역언어	지자체	2013 번역언어	2014 번역언어
기획재정부	영어	영어	서울특별시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미래창조과학부	영어	영어	부산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학부			광역시	체/번체), 일본어	체/번체), 일본어
교육부	영어	영어	대전 광역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외교부	영어	영어	대구 광역시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아랍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아랍어
통일부	영어	영어, 중국어	광주 광역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법무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인천 광역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국방부	영어	영어	울산 광역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전 행정부	영어	영어	경상 남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문화체육관광 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경상 북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농림축산식품 부	영어	영어	경기도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산업통상자원 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강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보건 복지부	영어	영어	충청 남도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환경부	영어	영어	충청 북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고용 노동부	영어	영어	전라 남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여성 가족부	영어	영어	전라 북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국토 교통부	영어	영어	제주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해양 수산부	x	영어			

2013년과 비교해보면 2014년 중앙정부는 통일부와 해양수산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번역언어 서비스의 범위를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지방정부의 경우, 대전광역시를 제외하면 번역언어 서비스의 범위를 늘리는 경향이 드러났다. 중앙정부는 주로 한국어와 영어에 한정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방정부는 영어 외에도 중국어와 일본어 번역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메이러츠(Meylaerts 2013: 526-527)에서 국가가 다언어주의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4가지 방식((1)완전한 단일언어주의, (2)완전한 다방향/다언어주의, (3)임시번역서비스, (4)국가 또는 연방차원 다언어주의와 지역차원 단일언어주의의 결합형태) 중 어느 것 하나에도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다. 코스키넨(2014: 9)에서도 지적하듯이 실제로는 이들 네 가지 방식 중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한국의 경우 (3)과 (4)가 결합된 형태와 유사하다. 먼저, 지난 1년 사이에도 번역정책이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번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4)가 뒤바뀐 형태, 즉 국가차원에서 단일언어주의와 지역차원에서 다언어주의의 결합형태와 유사하다<sup>10)</sup>. 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영어 웹사이트 번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공식언어가 한국어로 전형적인 단일언어국가이므로 영어 웹서비스를 공공서비스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1)</sup> 또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번역언어가 다양화되어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해당기관에서 특정 번역언어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해당기관의 정책방침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번역언어를 선택하는 데에는 해당지역의 해당언어사용자 비율과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해당기관의 정책적 지향점이나 목적에 따라 특정언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sup>12)</sup> 대구

10) (4)의 방식이 뒤바뀌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은 코스키넨(2014: 9)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11) 캐나다 퀘벡이나 핀란드처럼 국가/연방 차원에서 엄격한 이중언어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까지도 한국어로만 단일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2) 경상북도와 제주도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번역언어를 선정할 때 이용자 수나 해당지역의 외국인거주민 비율을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시, 강원도의 경우 아랍어, 러시아어처럼 다른 공공기관과 구별되는 번역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내국의 외국인보다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2014년 4월 24일 대구시와의 인터뷰)된 것이며 해당기관에서 주력하는 사업분야와 교류확대의 목적으로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것이 그 예이다(2014년 11월 12일 강원도청과의 인터뷰). 해당지역(또는 국내전체)의 언어 사용자수와 상관이 없어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 번역언어로 채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예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는 스페인어 또는 프랑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또는 제공했던) 것이 해당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인구수가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2014년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2014년 11월 13일 서울시와의 인터뷰).

새로운 번역어를 추가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경우 행정부의 방침이 달라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언어의 수요증가를 예측한 결과로 드러났다. 다음의 표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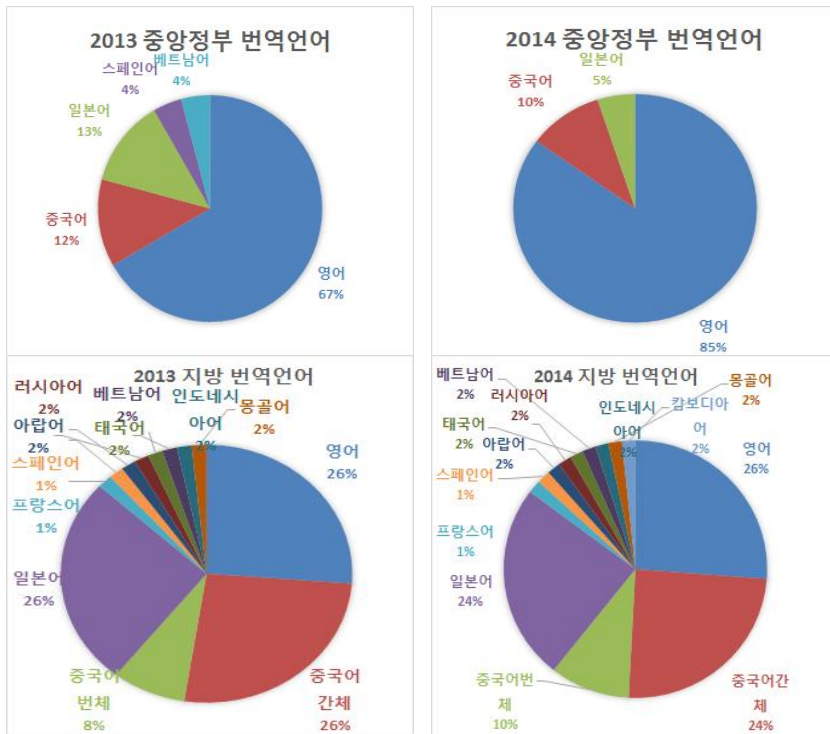
표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 번역언어 변경이유

정부	시/도/부	변경사항	변경이유
중앙 정부	통일부	중국어 추가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를 위해 한반도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 정책 홍보용 홈페이지 개설
	법무부	중국어, 일본어 중단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한 중국어, 일본어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단	사용자 이용률과 방문을 저조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어, 일본어 중단	이용자 저조, 번역의 일관성 문제
	해양수산부	영어 추가	2013년 조직개편으로(출범시) 임시홈페이지 운영하다가 2014년 정식홈페이지 구축
지자체	대전광역시	중국어, 일본어 중단	콘텐츠 점검관계로 일시 중단(2015년부터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 제공 예정)
	경상북도	중국어 번체 추가	중국인 관광객 증가, 홍콩, 대만의 중국인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주도	캄보디아어 추가	2011년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근거로 번역언어 설정, 2013년 캄보디아어 추가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에서 웹사이트 번역언어 변경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는 행정부의 정책적 방침이 달라짐에 따라 특정 번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상이 발견되고(예: 통일부, 해양수산부), 사용자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와 제주도의 경우, 특정언어에 대한 수요증가를 예측하여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우, 타시도의 서비스현황을 고려하여 번역언어를 선택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2013 2014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번역언어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013-2014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번역언어 비율



중앙정부의 번역언어는 영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2013년(67%) 대비 2014

년(85%)에 그 비율이 더 높아지면서 서비스 범위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주력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지방정부 번역언어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그 비율이 약 25%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세 언어로 번역서비스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4년에는 홍콩, 마카오 등의 언어사용자를 위한 중국어 변체 서비스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번역언어로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가 약 1-2%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

### 3.2 한국의 출판업계 원천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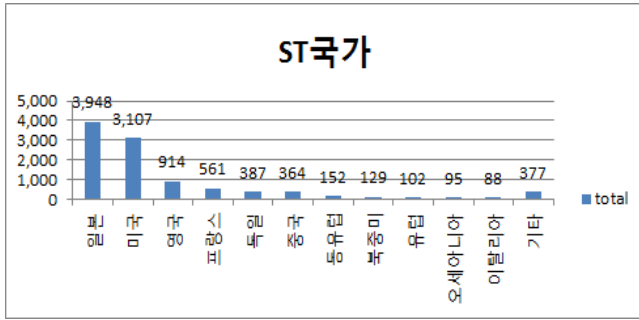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통계<sup>13)</sup>에 따르면, 국내 출판시장에서 번역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이후 다소의 증감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체의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2012년에는 번역서의 비중이 25.7%, 2013년에는 21.6%를 차지한 바 있다. 2012년 통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장르는 문학(21.1%)-만화(19.7%)-어린이도서(19.6%)였으며, 전체 장르에서 번역서에 대한 의존도는 철학(49.9%)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과학(39.3%)-만화(37.1%)-종교(32.9%) 순이었다. 이 중 철학부문의 번역에서 미국 의존도가 42.39%, 영국 의존도 7.92%로 원천언어 영어에 의존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50.32%로 나타났다. 순수과학부문에서는 미국 의존도 54.14%, 영국 의존도 12.19%로 원천언어 영어에 대한 의존도가 66.34%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전체 장르에서 번역서에 대한 의존도가 철학 44.11%, 순수과학 33.17%로 2012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베넷(Bennett)(2013: 171)에서 지적한 대로 영어사용국가(English speaking world)에서 과학부문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자국어로의 번역이 큰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 한국에서도 증명된 셈이다.

한편 2013년 국가별 번역도서 비중은 일본(3,368종), 미국(2,811종), 영국(912종), 프랑스(531종), 독일(436종), 중국(318종) 순으로 비중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2012년 국가별 번역도서 비중과 매우 유사하다. 2012년 번역서 원

13) <http://www.kpa21.or.kr/>, 2014년 11월 6일 마지막 접속

본(source text, 이하 ST)의 국가별 발행부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2012년 번역서의 원문 발행국가(대한출판문화협회 통계 근거)



단일국가로서는 일본서적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르는 만화(50.73%)이며 전체 번역되는 만화 중에서 일본만화의 비중이 99.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미국-영국 순인데 미국에서는 사회과학(20.73%)-어린이도서(20.7%)-문학(17.54%)이 가장 많이 수입되어 번역되고, 영국에서는 어린이도서(31.72%)-문학(22.97%)이 가장 많이 수입되어 번역된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오세아니아와 북아메리카에서 영어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을 감안하면 출판업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천언어는 영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중국어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한 공공기관의 번역언어 사용경향과 사뭇 다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중국어로의 번역율이 거의 두, 세 번째를 차지하고 일본어와 거의 유사한 비율(지방정부 간체 사용률 약 25%)로 높게 나타났던 것을 감안하면, 약 3.6%를 차지하는 출판업계의 중국어 원천언어 채택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번역언어와 달리 원천언어로 프랑스어(5.5%), 독일어(3.8%) 채택율이 높은 것도 특징적이다<sup>14)</sup>. 공공기관에서 웹사이트 번역언어로 채택되지 않았던 독일어에 대한 민간출판업

14) 익명의 심사자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20세기 초반 제국주의와 함께 프랑스어, 독일어의 영향력이 막강하였으며, 그에 따라 독일어권 텍스트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다량 유입된 경우가 많은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계의 의존도가 중국어보다도 높은 것은 흥미롭다<sup>15)</sup>.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에서 해당기관의 정책상 또는 목적에 따라 문화, 경제사업 교류 및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국가 및 언어와 민간 출판업계 분야에서 국내에 들여와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원천텍스트 국가 및 언어 간의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출판업계에서 특정번역서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최초 선정된 20개의 출판사 중에서 응답한 10개의 출판사와 그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국내 출판사의 번역서 선정시 고려사항

출판사	번역서 선정시 고려사항
걷는나무	1)도서의 컨셉(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통할만한 컨셉), 2)내용의 깊이, 3)원본의 인기(절대적이지 않음) <sup>16)</sup>
돌베개	1)국내에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내용의 완성도와 시의적절성, 한국 상황과의 연계성, 보편타당성 등) 2)과도한 선인세 경쟁을 야기하지 않는 책, 3)출판사의 성격과 어울리는 책
문학동네	작가의 국내외 인지도, 작품성, 대중성
문학사상	원본의 작품성, 상품성, 한국시장에 맞는지 여부
민음사	도서자체의 가치, 예상판매치
북폴리오	원본의 인기, 영화화가 된거나 우리나라에 이슈가 있는 아이টে이라든가 하는 확실한 셀링포인트가 있는 책
푸른숲	1) 내용의 완성도 2) 원본의 인기와 수상 내역 3) 작가 인지도
열림원	1) 시장성 2)원본의 인기(판매수치, 평가), 3)저자의 인지도(또는 잠재력)
한국문화사	원본의 인기와 학술적 가치
해냄	원본의 인기, 작품성, 화제성, 작가의 인지도 및 전문성, 참신한 주제

10년 전 국내출판번역의 현황을 조사한 이상원 외(2004: 137)에서 지적하였

15) 독일 출판산업의 동향을 연구한 신종락(2007: 207)에 따르면 2005년 독일 출판사들이 한국에 저작권을 수출한 비율이 전체 7.3%에 해당되며 이는 폴란드, 체코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즉, 독일 출판산업에서도 한국으로의 출판 저작권 수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16) 출판사에서 우선순위를 언급한 경우, 순위에 따라 숫자로 표시하였다.

듯이 대체로 번역도서를 선정할 때 영리법인인 출판사의 성격상 시장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출판사에 따라 고려하는 사항이 조금씩 달랐는데, 돌베게의 경우 출판사의 성격과 어울리는 도서를 선정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한국문화사의 경우 주로 학술 번역서를 출판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변한 것이 그 예이다. 한국 상황에 연계성이 있는지, 시의가 적절한지, 대중적인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이븐-조하르(1978/2000: 193)가 지적한 대로 외국도서가 자국의 폴리시스템 안에서 양립 가능한 지의 여부가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인터뷰에서 예외적으로 한 출판사가 ‘번역언어’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번역이 어려운 “아주 특이한 언어”를 제외하면 어떤 언어로 쓰였는지 보다도 도서자체의 가치와 상업성을 중요시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비록 대다수의 출판사들이 사전에 특정 번역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시장성과 상품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도서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림 2에서 보듯이 많은 비율이 몇 국가 및 언어에 편중되는 경향이 드러난다는 것은 곧 해당언어가 한국 출판시장, 나아가 출판번역가의 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 3.3 한국 번역학계의 교육대상언어와 연구대상언어

#### 3.3.1 학계의 교육대상언어

대학원에서 특정 언어에 대한 통번역교육과정을 개설할 때에는 해당대학의 특별한 교육이념이나 방침에 따라 실제 학생들이나 시장의 수요와 상관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실상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 충원율을 간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S대학의 경우, 러시아어와 스페인어 통번역학과를 개설하였으나 학생 충원율이 저조해 2015년에는 해당 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은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특정언어 교과목을 개설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관심 있다고 생각되는 언어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할 때 국내이든 국외이든 어느 정도의 수요나 관심이 예측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대학원의 교과개설 언어가 앞서 논의한 공공부문과 출판부문의 번역언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전주영(2010: 111)은 2010년 기준 국내의 통번역과정(전공) 개설 대학원으로 계명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외대, 서울외대, 신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제주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동대 12곳을 언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반대학원에서 통번역과정(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로 부산대와 숙명여대를 들 수 있다. 이들 대학의 교육개설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6 국내 대학원 통번역과정(과목) 개설 현황(2014년 현재)

대학원 및 전공 명칭	교육개설과정
계명대 일반대학원 통번역학과	한영, 한일, 한중
고려대 인문정보대학원 영어번역학과	한영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영어통번역학과	한영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번역학 전공	한영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영, 한일, 한중
서울외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영, 한일, 한중
신문대 통번역대학원	한영, 한일, 한중
성균관대 번역, TESOL대학원	한영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번역학 전공	한영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영, 한일, 한중, 한불
제주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영, 한일, 한중, 한독
중앙대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한영, 한중, 한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영, 한일, 한중, 한불, 한독, 한러, 한서, 한아
한동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영

표 6에서 공통적으로 영어과목이 개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교육과정으로는 일본어, 중국어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불어와 독일어 순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국내 대학원에서 개설된 통번역과정은 독일어를 제외하고 모두 공공부문 웹사이트 번역어를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소재한 대학원(이화여대, 한국외대)의 개설과목이 모두 서울특별시

의 웹사이트 번역언어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시(市)내 번역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설 교과목이나 교과목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국내 대학원 통번역학과와 통번역언어는 출판번역언어보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번역언어와 유사하다.

### 3.3.2 학계의 연구대상언어

앞서 논의하였던 공공부문, 출판부문, 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번역언어와 실제 학계의 연구대상언어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번역학 연구』와 『통역과 번역』에서 논의된 번역언어의 사용 경향은 다음과 같다.

표 7 학술지 연구대상언어

번역언어		통역과 번역	번역학연구	전체	
영어	영한	빈도	33	77	110
		학술지 중%	30.3%	32.9%	32.1%
		전체%	9.6%	22.4%	32.1%
	한영	빈도	16	46	42
		학술지 중%	14.7%	19.7%	18.1%
		전체%	4.7%	13.4%	18.1%
	영한&한영	빈도	1	6	7
		학술지 중%	0.9%	2.6%	2.0%
		전체%	0.3%	1.7%	2.0%
	한국어&영어	빈도	0	4	4
		학술지 중%	0.0%	1.7%	1.2%
		전체%	0.0%	1.2%	1.2%
	영어	빈도	0	4	4
		학술지 중%	0.0%	1.7%	1.2%
		전체%	0.0%	1.2%	1.2%
일본어	일한	빈도	1	2	3
		학술지 중%	0.9%	0.9%	0.9%
		전체%	0.3%	0.6%	0.9%
	한일	빈도	1	5	6
		학술지 중%	0.9%	2.1%	1.7%
		전체%	0.3%	1.5%	1.7%
	일본어	빈도	2	0	2

		학술지 중%	1.8%	0.0%	0.6%
		전체%	0.6%	0.0%	0.6%
중국어	중한	빈도	0	8	8
		학술지 중%	0.0%	3.4%	2.3%
		전체%	0.0%	2.3%	2.3%
	한중	빈도	0	3	3
		학술지 중%	0.0%	1.3%	0.9%
		전체%	0.0%	0.9%	0.9%
	중한&한중	빈도	2	0	2
		학술지 중%	1.8	0.0	0.6
		전체%	0.6	0.0	0.6
	중국어	빈도	1	2	3
		학술지 중%	0.9%	0.9%	0.9%
		전체%	0.3%	0.6%	0.9%
불어	불한	빈도	5	7	12
		학술지 중%	4.6%	3.0%	3.5%
		전체%	1.5%	2.0%	3.5%
	한불	빈도	3	1	4
		학술지 중%	2.8%	0.4%	1.2%
		전체%	0.9%	0.3%	1.2%
	불영&불한	빈도	0	2	2
		학술지 중%	0.0%	0.9%	0.6%
		전체%	0.0%	0.6%	0.6%
일반	일반	빈도	36	58	94
		학술지 중%	33%	24.8%	27.4%
		전체%	10.5%	16.9%	27.4%
기타	기타	빈도	8	9	17
		학술지 중%	7.3%	3.8%	5.0%
		전체%	2.3%	2.6%	5.0%
전체	전체	빈도	109	234	343
		학술지 중%	100%	100%	100%
		전체%	31.8%	68.2%	100%

전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번역방향은 영한으로 32.1%를 차지한다. 그 다음 특정번역언어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은 ‘일반’논문이 27.4%를 차지한다. 한 가지의 번역방향 외에도 ‘영한&한영’, ‘한중&중한’처럼 양방향 번역에 대한 논문도 있는데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이항(2014: 246)의 논의처럼 번역학의 영어화 현상은 본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연구대상언어별

로 영어(54.6%)-불어(5.3%)-중국어(4.7%)-일본어(3.2%) 순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통번역과정 대학원의 50% 이상이 한중, 한일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학계에서 연구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불어 통번역 교과를 개설한 대학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불한, 한불 등 불어 통번역에 대한 연구가 영어 다음을 차지한다는 것은 흥미롭다. 반면, 표 6에서처럼 국내 통번역학 교육과정에서 개설되지 않은 언어 또는 언어조합은 두 학술지의 연구논문(적어도 국내 연구자에 의한 논문)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지만 학교의 교육과정이 번역학 연구 스펙트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cf. 이향 2014: 245). 특이하게 기타언어(조합) 중에서 영어-이탈리아어, 중국어-네덜란드어의 언어조합이 나타난 것은 국제호의 해외연구자들의 논문이었다.

학술지 별로 『통역과 번역』의 경우 영어(45.9%)-불어(7.4%)-일본어(3.6%)-중국어(2.7%) 순으로 나타났고 『번역학 연구』의 경우 영어(58.5%)-중국어(5.6%)-불어(4.3%)-일본어(3) 순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두 학술지의 연구대상언어를 조사한 김혜림(2013: 107)에서 『통역과 번역』의 경우 영어-중국어-일어-불어 순으로 나타났고, 『번역학 연구』의 경우 영어-일어-중국어-불어 순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2009년 이후 최근의 연구에서 불어 통번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통역과 번역』 연도별 번역언어 연구경향을 보자.

표 8 2009-2013 『통역과 번역』 연구대상언어

		연도					전체	
		2009	2010	2011	2012	2013		
번 역 학 연 어	영한	빈도	10	8	3	7	5	33
		연도 중 %	52.6%	34.8%	15.0%	28.0%	22.7%	30.3%
	한영	빈도	1	5	2	6	2	16
		연도 중 %	5.3%	21.7%	10.0%	24.0%	9.1%	14.7%
	일한	빈도	0	0	0	1	0	1
		연도 중 %	0.0%	0.0%	0.0%	4.0%	0.0%	.9%
	한일	빈도	0	1	0	0	0	1

	연도 중 %	0.0%	4.3%	0.0%	0.0%	0.0%	.9%
영한, 한영	빈도	0	0	1	0	0	1
	연도 중 %	0.0%	0.0%	5.0%	0.0%	0.0%	.9%
중한, 한중	빈도	0	0	0	1	1	2
	연도 중 %	0.0%	0.0%	0.0%	4.0%	4.5%	1.8%
일본어	빈도	0	0	0	1	1	2
	연도 중 %	0.0%	0.0%	0.0%	4.0%	4.5%	1.8%
중국어	빈도	0	0	0	0	1	1
	연도 중 %	0.0%	0.0%	0.0%	0.0%	4.5%	.9%
일반	빈도	5	6	11	3	11	36
	연도 중 %	26.3%	26.1%	55.0%	12.0%	50.0%	33.0%
기타	빈도	2	1	2	2	1	8
	연도 중 %	10.5%	4.3%	10.0%	8.0%	4.5%	7.3%
한불	빈도	0	1	1	1	0	3
	연도 중 %	0.0%	4.3%	5.0%	4.0%	0.0%	2.8%
불한	빈도	1	1	0	3	0	5
	연도 중 %	5.3%	4.3%	0.0%	12.0%	0.0%	4.6%
전체	빈도	19	23	20	25	22	109
	연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역과 번역』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번역언어와 번역방향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가장 많이 연구된 번역방향과 언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009년: 영한-일반-기타/한영/불한 (영어-기타-불어)
- 2010년: 영한-일반-한영-한일/한불/불한 (영어-불어-일본어)
- 2011년: 일반-영한-한영/기타-영한&한영/한불 (영어-기타-불어)
- 2012년: 영한-한영-일반-불한-기타-일한/중한&한중/일본어/한불  
(영어-불어-기타-일어-중국어)
- 2013년: 일반-영한-한영-중한&한중/일본어/중국어/기타  
(영어-중국어-일본어/기타)

2009년, 2010년, 2012년에는 영한번역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반면 2011년과 2013년에는 특정 번역언어에 국한하지 않는 ‘일반’연구가 가장 활발했다. 『통역과 번역』은 연도별로도 2013년을 제외하고 영어 다음으로 불어 통번역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고, 2013년은 이례적으로 중국어에 대한 연구가 영어 다음으로 가장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중국어에 대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경향도 발견되며 연구대상 언어도 점차로 다양해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번역학 연구』 연도별 번역언어 연구경향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2009-2013 『번역학 연구』 연구대상언어

		연도					전체	
		2009	2010	2011	2012	2013		
번 역 학 연 어	영한	빈도	10	17	14	18	18	77
		연도 중 %	22.7%	37.8%	31.8%	35.3%	36.0%	32.9%
	한영	빈도	8	10	11	10	7	46
		연도 중 %	18.2%	22.2%	25.0%	19.6%	14.0%	19.7%
	일한	빈도	0	0	0	0	2	2
		연도 중 %	0.0%	0.0%	0.0%	0.0%	4.0%	.9%
	한일	빈도	0	1	1	2	1	5
		연도 중 %	0.0%	2.2%	2.3%	3.9%	2.0%	2.1%
	중한	빈도	2	1	2	2	1	8
		연도 중 %	4.5%	2.2%	4.5%	3.9%	2.0%	3.4%
	한중	빈도	1	0	0	1	1	3
		연도 중 %	2.3%	0.0%	0.0%	2.0%	2.0%	1.3%
	영한, 한영	빈도	1	1	2	1	1	6
		연도 중 %	2.3%	2.2%	4.5%	2.0%	2.0%	2.6%
	중국어	빈도	0	0	1	0	1	2
		연도 중 %	0.0%	0.0%	2.3%	0.0%	2.0%	.9%
일반	빈도	17	9	6	12	14	58	
	연도 중 %	38.6%	20.0%	13.6%	23.5%	28.0%	24.8%	
기타	빈도	4	1	2	1	1	9	

	연도 중 %	9.1%	2.2%	4.5%	2.0%	2.0%	3.8%
한불	빈도	0	0	0	1	0	1
	연도 중 %	0.0%	0.0%	0.0%	2.0%	0.0%	.4%
불한	빈도	0	3	2	1	1	7
	연도 중 %	0.0%	6.7%	4.5%	2.0%	2.0%	3.0%
불영, 불한	빈도	0	1	0	0	1	2
	연도 중 %	0.0%	2.2%	0.0%	0.0%	2.0%	.9%
한국어, 영어	빈도	0	1	1	1	1	4
	연도 중 %	0.0%	2.2%	2.3%	2.0%	2.0%	1.7%
영어	빈도	1	0	2	1	0	4
	연도 중 %	2.3%	0.0%	4.5%	2.0%	0.0%	1.7%
전체	빈도	44	45	44	51	50	234
	연도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마찬가지로 『번역학 연구』도 연도별로 많이 연구된 번역언어와 방향이 차 이난다. 반면 『통역과 번역』에 비하여 연구되는 언어조합이 다양하다(불영 & 불한, 한국어&영어). 다음은 『번역학 연구』에서 연도별로 가장 많이 연구된 번역방향과 언어를 나타낸 것이다.

- 2009년: 일반-영한-한영-기타-중한-한중/영한&한영/영어  
(영어-기타-중국어)
- 2010년: 영한-한영-일반-불한-한일/중한/영한&한영/기타/불영&불한/한국어&영어 (영어-불어-일본어/중국어/기타)
- 2011년: 영한-한영-일반-중한/영한&한영/기타/불한/영어-한일/중국어/한국어&영어 (영어-중국어-불어/기타-일본어)
- 2012년: 영한-일반-한영-한일/중한-한중/영한&한영/기타/한불/불한/한국어&영어/영어 (영어-중국어-일본어/불어-기타)
- 2013년: 영한-일반-한영-일한-한일/중한/한중/영한&한영/중국어/기타/한불/불한/한국어&영어/영어 (영어-일본어/중국어-불어)

『번역학 연구』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영한번역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영어 다음으로 중국어에 대한 연구비율이 연도별로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번역학 학계의 연구대상언어는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4가지 언어에 편중되고 있는 경향이 드러났다. 그 상대적인 비율은 연도별, 학술지별로 조금씩 다르고, 공통적으로 영어연구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목도된다. 흥미로운 것은 불어를 제외하고 연구되는 언어의 상대적인 비중(영어 78.7%, 중국어 7.5%, 일본어 5.2%)이 그림 1의 2014년 중앙정부의 번역비율(영어 85%, 중국어 10%, 일본어 5%)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원 통번역과정 번역언어 개설양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국내 번역학 학계의 번역언어와 연구양상은 공공기관 웹사이트 번역언어 및 비율과 유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번역언어를 중심으로 현재 국내 번역학의 위치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번역학 학계의 교육대상언어와 연구대상언어가 공공부문의 번역언어, 민간부문(출판업계)의 번역언어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학계의 교육대상언어와 연구대상언어는 제주도를 제외하고<sup>17)</sup> 본 연구의 모든 공공기관 웹사이트 번역언어를 모두 포괄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계에서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4가지 언어에 연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불어를 제외하고 그 상대적인 비중이 2014년 중앙정부의 번역언어 비율과 매우 흡사한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비율이 유사하다는 것은 우연적인 것일지도 모르지만, 번역 또는 번역교육 및 연구를 위해 특정언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공공부문과 학계가 유사한 것

17) 본 연구의 교육대상언어와 연구대상언어에 속하지 않는 제주도청에서 제공하는 번역언어 서비스는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이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도 일부 섹션에만 국한되는 등 제한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번역서비스가 제공되는 다른 언어와 나란히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은 우연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다. 공공부문의 번역언어가 학계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 그 반대인지의 문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부문의 학계이든 이 시대의 다중언어적 사회변화와 시장의 수요 및 요구를 간과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확실하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중국어로의 번역이 확대되고 학술지 연구논문에서 중국어 번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도 최근 한국사회의 중국에 대한 관심과 한-중 FTA 체결 등 교역확대, 정치외교적 우호관계 조성 등의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목도되는 번역학의 영어화현상(cf. Bennett 2013, Peterlin 2013)도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고, 이는 비단 학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출판업계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혜립(2013), 이향(2014)의 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 번역학계의 영어화 현상과, 몇 개의 언어에 교육과정 및 연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향후 번역학의 스펙트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현실적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일 것 같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웹사이트 번역언어 서비스의 제공양상이 자주 바뀌는 것은 인터뷰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그 선정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 물론 코스키넨(2014)의 연구처럼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특정언어의 위상과 중요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방침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번역언어 정책도 달라질 수 있음을 부인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특정언어에 대한 번역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좀 더 일관성 있는 정책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언어의 국내사용자수, 가능한 국외사용자수, 해당기관에 해당언어사용자의 문의율 등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셋째, 출판번역에서 원천언어로서 독일어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 해당언어의 통번역교육과정과 연구대상언어로서의 채택이 낮았고, 중국어에 대한 공공기관 웹사이트 번역과 교육과정개설이 활발한 반면, 실제 통번역현상에 대한 연구비율이 낮은 점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먼저 전자는 다른 언어에 비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비율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는 향후 대학이 교과과정이 개설하고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12년 통계에 따르면 독일어 번역서

의 비중은 아동-문학-철학-사회과학 순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그 번역이 비통번역전공자에 의한 것이 많을 가능성을 함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통계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함을 고백한다. 사실 번역가를 선정하는 데 전공관련 유무 외에도 번역경험, 전문지식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sup>18)</sup>. 후자는 현재 중국어 통번역교육과 졸업생의 진로가 연구중심보다는 실무위주일 가능성, 나아가 중국어통번역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언어를 분석할 때, 특정언어에 대한 분석이나 논의가 없으면 ‘일반’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중국 번역역사나 번역이론에 대한 논의가 심심치 않게 학계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해두는 바이다.

본 연구가 국내 번역학의 위치성을 진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번역언어’를 중심으로 국내 공공기관과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출판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범위가 제한적인 부분도 있음을 인정한다. 현재 한국번역학의 위치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 연구대상의 번역언어 외에도 학계의 교육대상중심이 되는 이론과 그 학자가 소속한 국가 및 언어, 연구에서 자주 채택되는 이론 및 국가, 언어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필자의 추후 논의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강지혜 (2009)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연구」, 『번역학연구』 10(4): 9-39.
- 강지혜 (2013) 「다문화 담론에서 통역의 역할 연구」, 『번역학연구』 14(5): 7-42.
- 김련희 (2011) 「학부 번역교육의 현재와 미래」, 『통역과 번역』 13(2): 19-52.
- 김혜림 (2013) 「한국의 당대(1999-2013) 번역학 연구동향」, 『번역학연구』 14(5): 95-115.

18)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응답 출판사 10곳과 ‘번역가 선정시 고려사항’에 관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신중락 (2007) 「독일 출판산업의 동향과 전망」, 『한국출판학연구』 52: 201-36.
- 이상빈 (2013) 「국내 학부 통역전공자 인식조사 - 통역교육 및 통역사 직업에 관한 소규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14(4): 91-113.
- 이상원, 이향 (2004) 「출판 번역 현황에 대한 연구-편집자 면접 조사를 바탕으로」, 『번역학연구』 5(1): 133-44.
- 이향 (2014) 「번역학의 영어화에 관한 고찰: 스넬 혼비(Snell-Hornby)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3): 233-52.
- 전주영 (2010) 「출판번역-번역전략과 팀번역: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제안」, 『언어과학』 17(3): 109-38.
- 정호정 (2013) 「번역학 전문학술지의 발달과 최근 연구 동향 - 1999년 이후 국내의 대표 학술지 분석」, 『통역과번역』 15(1): 235-56.
- 정혜연 (2009) 「법정통번역 교육」, 『번역학연구』 10(2): 181-206.
- 조의연, 조성은 (2013) 「『호밀밭의 파수꾼』 번역텍스트의 문장 종결부 분석-스카즈(skaz) 내러티브 사례」, 『번역학연구』 14(4): 141-162.
- 황지연 (2013) 「중국 근대 성경번역과 백화문의 맥락적 이해 - 『和合本』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4): 225-246.
- Baker, Mona (2014) 'The changing landscape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in Sandra Bermann and Catherine Porter (eds.), *A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 Hoboken: John Wiley & Sons, Ltd., 15-27.
- Bennett, Karen (2013)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academia. Combating Epistemicide through translator training',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7(2): 169-93.
- Choi, Jinsil (2014) 'A Corpus Based Genre Analysis of Institutional Translation in Korea', Phd dissertation, Leicester: University of Leicester.
- Cronin, Micheal (2003) *Translation and Globalisation*. London: Routledge.
- Cronin, Micheal (2006) *Translation and Identity*. London: Routledge.
- Even-Zohar, Itamar (1978/2000)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polysystem'.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2-7.
- Footitt, Hilary (2012) 'Incorporating languages into histories of war: a research

- journey'. *Translation Studies* 5(2): 217-31.
- Koskinen, Koskinen (2014) 'Institutional translation: the art of government by translation'.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907676X.2014.948887>
- Meylaerts, Reine (2013) 'Multilingualism as a challenge for translation studies'. in Carmen Millán and Francesca Bartrina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519-33.
- Peterlin, A. Pisanski (2013) 'Attitudes towards English as an academic lingua franca in translation',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7(2): 195-216.
- Snell-Hornby, Mary (2010) 'Is Translation Studies going Anglo-Saxon?', in Daniel Gile, Gyde Hansen and Nike Pokorn (eds.), *Why Translation Studies Matter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97-103.
- Tymoczko, Maria (2005) 'Trajectories of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Meta: Translators' Journal* 50(4): 1082-97.

[Abstract]

**A Study on Translation Languages in Government Institutions,  
Publishing Industries, and Translation Studies in South Korea**

Choi, Jinsil  
(Keimyung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ranslation languages of government institutions, publishing industries and Translation Studies in South Korea. Postcolonial translation studies argue that translation directions of literary text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power relations of the languages involved, such as a translation of a minor language into a major language (Cronin 2003, 2006; Baker 2014). However, the current study argues that not only the translation direction but also the need and demand of certain translation languages i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ublishing industries fundamentally influence the languages of translation research in academic fields in the Korean context. For this,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languages of government institutions' websites, text publications of private sectors and academic journals as research themes is undertaken along with an investigation of translation courses in universities and text selection criteria for publication through email, facebook, and blog contacts with publishers. It is shown that the dominance of English into Korean and Korean into English translations has been identified in the three sectors, and that the translation language demands of government institutions match languages for teaching and research in Korean Translation Studies academia.

▶ Key Words: Korean government, publishing industry, translation direction, translation language, translation studies in Korea

최진실

계명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조교수

diane45@kmu.ac.kr

관심분야: 제도번역, 코퍼스번역학, 번역언어정책

논문투고일: 2015년 1월 15일

심사완료일: 2015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15년 3월 9일